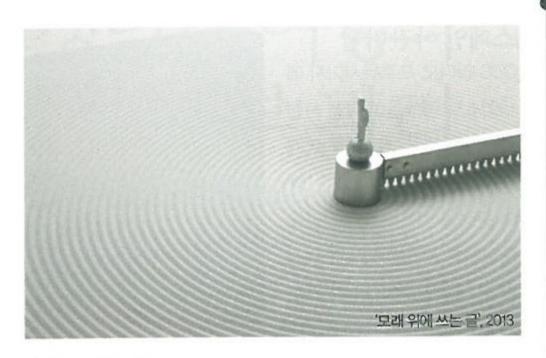


ART

에디터 김재석



〈안규철〉전

2014년부터 매년 한 명의 중견 작가를 선정해 후원하는 '국립현대미 술관 현대차 시리즈'의 두 번째 주인공 안규철의 전시가 열린다. 안 규철은 한국 사회 이면의 부조리를 우회하는 개념적 작품으로 잘 알 려졌다. 허허실실 웃음이 나오는 이미지에는 비수를 꽂는 날카로운 비판정신과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9월 15일~2016년 2월 21일) **문의** 3701-9500

Kyuchul Ah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Hyundai Motor Series', founded in 2014, selects and supports an artist every year. The second artist selected by the program this year is Kyuchul Ahn, known for portraying social irregularities metaphorically. His work has humorous images, but they imply sharp criticism and political messag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Sep. 15~Feb. 21, 2016) INQUIRY 3701-9500



〈아시아 페미니즘: FANTasia〉전

최근 SNS에서 '나는 페미 니스트입니다'라는 해시태 그가 화제를 모았다. 여성 이 사회에서 겪는 각종 차 별에 반대하고, 그것에 저 항하는 용감한 여성을 지지 한다는 의미다. 미술계라고 다르지 않다. 전시는 아시 아 7개국 12명의 작품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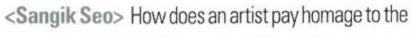
해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의미와 맥락을 살핀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관(9월 15일~11월 8일) 문의 2124-8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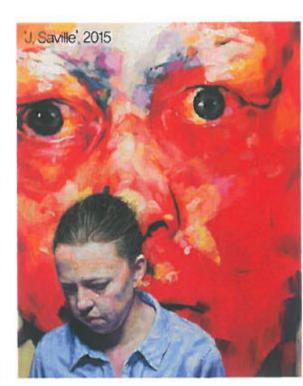
<Asia Feminism: FANTasia> An SNS hashtag called 'IAmaFeminist' was recently very popular. The hashtag disagrees about any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society and it shows support to courageous women who fight it back. The art scene sees the same trend. The <Asia Feminism: FANTasia> exhibition examines the contemporary meaning and context of 'feminism' through art pieces by 12 artists from seven Asian countries.

Seoul Museum of Art (Sep. 15~Nov. 8) INQUIRY 2124-8928

〈서상익〉전

화가가 미술사의 위대한 작가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상익은 누구나 알 만한 화가의 얼굴과 작품을 가로세로 27.3×22cm 크기로 제작한 캔버스에 담는다. 세밀한 붓 터치로 완성한 그의 작품은 단순한 화가의 초상화가 아니다. 그는 숙제를 풀듯 1년 동안 연작 '화가의 성전'을 제작하며 공간과 인물, 색과색, 붓질의 흐름 등 회화의 본질과 역사를 탐색했다. 갤러리기체(9월 17일~10월 24일) 문의 070~4237~3414





greatest artists in the history of art? Sangik Seo makes a 27.3 x 22cm canvas and draws a renowned artist's portrait on it. His work, finished with delicate brush strokes, is not a simple portrait. Seo studied the nature and the history of painting by experimenting with spaces, human figures, colors and brush strokes while producing the 'Temple of Artist' series for the past year as if he had to do homework. Gallery Kiche (Sep. 17~Oct. 24) INQUIRY 070-4237-3414



〈이수경〉전

종교의 유무나 종파와 관계없이 우리는 '전 생'이란 단어에 매력을 느낀다. 그 말에는 무 언가를 믿으려는 의지와 볼 수 없는 것을 보 고 싶은 욕망이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 이 수경은 우리를 그 전생의 세계로 안내한다. 최면을 통해 스스로 영겁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전생에서 본 장면을 회화로 재현하는 것, 그렇게 탄생한 '전생 역행 그림'은 현대사회가 잊은 상상력의 힘을 강렬하게 증명한다. 아뜰리에 에르메스(9월 18일~12월 20일) 문의 3015-3248

Sookyung Yee> We are all curious about 'former life' no matter what religion we have or what religious sect we are in. It is because the word 'former life' is an intersection that embraces willingness to believe something and desire to see what is unseen. Sookyung Yee invites you to the world of past life. She reproduces what she sees when going back eons of her former life through hypnosis. The 'Past Life Regression' works are a trustworthy evidence of imagination that has been forgotten in the society today. Atelier Hermès (Sep. 18~Dec. 20) INQUIRY 3015-3248

〈우고 론디노네〉전

스위스 출신인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은 한 작가의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다. 원시 조각처럼

돌을 쌓아 만든 사람 형상, 색색의 과녁 회화, 유령처럼 하얗게 질 린 앙상한 나무, 무지개 형태로 만든 글자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우리를 마법의 시간으로 인도하는 그의 작품을 만나보자: 국제갤러리(9월 2일~10월 11일) 문의 735-8449



